

직업교육

I. 직업교육 정책

□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 - 서울시교육청 '미래직업세계 변화에 따른 직업진로교육 강화' 업무협약(2017.05.17.)

- 한국고용정보원과 서울시교육청은 5월 17일(수)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직업 및 진로지도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함.
- 두 기관은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미래직업세계 변화에 대비한 학교 직업·진로 교육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함.
- 두 기관은 이를 위해 취업 및 진로직업 정보 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 활용 확대, 직업·진로 교육 관련 콘텐츠 및 인프라 교류 활성화, 국가 인력수급전망 자료 공유, 교원 진로지도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협력 등을 함께 해 나갈 예정임.

□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대학 발표(2017.04.17.)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 사업) “일반대 산학협력 고도화형”, “전문대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선정 대학을 발표
- * 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
- LINC+는 (가칭)Post-LINC로 불리던 LINC사업의 후속사업과 신규 추진되는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 사업”이 합쳐진 사업으로, 올해 총 3,2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 지원 사업임.

* (예산규모)

일반대 산학협력 고도화형 2,163억 원,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220억 원

전문대 산학협력 고도화형 130억 원,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758억 원

- 이번에 선정 발표된 “일반대 산학협력 고도화형”, “전문대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최종 선정 대학은 다음과 같음.

〈 일반대 산학협력 고도화형 선정대학 명단 〉

권역 구분	대학명(가나다순)
수도권 (11개교)	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아주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ERICA), 한양대(서울)
충청권 (11개교)	건국대(글로벌), 건양대, 공주대, 대전대, 선문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남대, 한밭대, 한서대
호남제주권 (10개교)	군산대, 동신대, 우석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호남대
대경강원권 (12개교)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운대, 경일대, 계명대, 금오공대, 대구대, 안동대, 연세대(원주), 영남대, 한림대
동남권 (11개교)	경남대, 경상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울산대, 인제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 전문대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선정대학 명단 〉

권역 구분	대학명(가나다순)
수도권 (11개교)	경북대, 대림대, 동서울대, 동양미래대, 두원공대, 부천대, 연성대, 오산대, 유한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업전문대
충청강원권 (9개교)	강동대, 대덕대, 대원대, 대전과학기술대, 백석문화대, 신성대, 우송정보대, 충북보건과학대, 한림성심대
호남제주권 (7개교)	서영대, 순천제일대, 전남과학대, 전북과학대, 전주비전대, 제주관광대, 조선이공대
대경권 (9개교)	가톨릭상지대, 경북전문대, 계명문화대, 구미대, 대구과학대, 수성대, 안동과학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동남권 (8개교)	거제대, 경남도립남해대, 동주대, 부산경상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여자대, 울산과학대, 한국승강기대

- LINC+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앞으로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우수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 및 창업 활성화 등 지역사회의 혁신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계획

□ **교육부, 자유학기제, 교육청 지역특화사업지원으로 추진(2017.04.13.)**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역 특색을 반영하여 자유학기제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힘.
- 자유학기제 지역특화사업은 시도교육청에 대한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 지원과는 별도로 시·도교육청의 여건을 고려하여 더욱 특화된 프로젝트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지원
- 올해는 9개 교육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남, 전남)에서 자유학기제 지역특화사업이 진행됨.
 - ※ 총 사업비 40억(시·도교육청별 규모 및 신청과제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 각 시·도교육청별로 교원역량 강화, 과정중심평가 활성화, 개별학생 맞춤형지원, 미래 핵심역량 강화, 지역 내 기관과의 연계 등 다채로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교사들의 실질적인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제시
 - 모든 학생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학습 및 평가 지원 강화
 - 자유학기제의 교실수업 개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교육과정 및 자유학기활동 프로그램 연계, 교사 연수를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
 - 지역 내 인프라를 활용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우는 프로젝트 추진

II. 직업교육 통계

◆ 2017년 4월 대학정보공시

□ 2017년 1학기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0.0%로 2016년 1학기(38.5%) 대비 1.5%p 상승함.

- 51명 이상의 대규모 강좌 비율이 전년 대비 1.1%p 하락하고, 21명 이상 50명 이하의 중규모 강좌 비율이 0.4%p 하락했으나,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의 소규모 강좌비율이 41.6%로 국·공립대학(34.4%)보다 7.2%p 높고,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소규모 강좌비율이 40.3%로 수도권 대학(39.6%)보다 0.7%p 높음.

표 1. 학생 규모별 강좌 수

(단위: 개(강좌), %p)

구분	2017년 1학기				2016년 1학기				20명 이하 강좌비율 증감 (A-B)	
	20명 이하 (A)	21~50명	51명 이상	총강좌 수	20명 이하 (B)	21~50명	51명 이상	총강좌 수		
전체 (187개교)	124,475 (40.0)	145,546 (46.8)	40,819 (13.2)	310,840	121,487 (38.5)	148,735 (47.2)	44,994 (14.3)	315,216	1.5	
설립	국·공립 (30개교)	22,699 (34.4)	35,380 (53.6)	7,892 (12.0)	65,971	21,584 (32.2)	36,642 (54.7)	8,703 (13.1)	66,929	2.2
	사립 (157개교)	101,776 (41.6)	110,166 (45.0)	32,927 (13.4)	244,869	99,903 (40.2)	112,093 (45.1)	36,291 (14.7)	248,287	1.4
수도권 (70개교)	46,401 (39.6)	52,727 (45.0)	17,928 (15.3)	117,056	44,471 (38.0)	52,925 (45.3)	19,507 (16.7)	116,903	1.6	
	국·공립 (6개교)	3,680 (33.9)	5,748 (52.9)	1,432 (13.2)	10,860	3,298 (30.8)	5,916 (55.3)	1,487 (13.9)	10,701	3.1

〈표 계속〉

사립 (64개교)	42,721	46,979	16,496	106,196	41,173	47,009	18,020	106,202	1.4
	(40.2)	(44.2)	(15.5)		(38.8)	(44.3)	(17.0)		
비수도권 (117개교)	78,074	92,819	22,891	193,784	77,016	95,810	25,487	198,313	1.5
	(40.3)	(47.9)	(11.8)		(38.8)	(48.3)	(12.9)		
국·공립 (24개교)	19,019	29,632	6,460	55,111	18,286	30,726	7,216	56,228	2.0
	(34.5)	(53.8)	(11.7)		(32.5)	(54.6)	(12.8)		
사립 (93개교)	59,055	63,187	16,431	138,673	58,730	65,084	18,271	142,085	1.3
	(42.6)	(45.6)	(11.8)		(41.3)	(45.8)	(12.9)		

주: 1) 자료 기준일: 2017년 4월
 2) ()는 비율을 나타냄.
 자료: 교육부(2017), 2017년 4월 대학정보공시 보도자료.

□ 2017년 1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5.8%로 2016년(64.4%) 대비 1.4%p 상승함.

-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고(국·공립: 60.5% → 61.1%, 사립: 65.5% → 67.2%), 사립대학의 상승률(1.7%p)이 국·공립대학의 상승률(0.6%p)보다 1.1%p 높음.
-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67.9%로 수도권 대학(62.4%)보다 5.5%p 높음.

표 2. 2017년도 1학기 교원 강의 담당 비율

(단위: 학점, %, %p)

구분	2017년 1학기					2016년 1학기 전임교원 담당학점 (B)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증감 (A-B)	
	전임교원 담당학점 (A)	비전임교원						
		겸임교원 담당학점	초빙교원 담당학점	시간강사 담당학점	기타교원 담당학점			
전체(187개교)	487,102 (65.8)	29,065 (3.9)	33,738 (4.6)	167,874 (22.7)	22,469 (3.0)	481,547 (64.4)	1.4	
설립	국·공립 (30개교)	102,763 (61.1)	3,240 (1.9)	8,046 (4.8)	49,107 (29.2)	5,043 (3.0)	103,039 (60.5)	0.6
	사립 (157개교)	384,339 (67.2)	25,825 (4.5)	25,692 (4.5)	118,766 (20.8)	17,426 (3.0)	378,508 (65.5)	1.7

〈표 계속〉

수도권 (70개교)		177,966	12,983	14,810	68,471	10,987	175,267	1.5
		(62.4)	(4.6)	(5.2)	(24.0)	(3.8)	(60.9)	
국·공립 (6개교)	사립 (64개교)	15,308	590	1,825	9,169	967	15,325	△0.5
		(54.9)	(2.1)	(6.6)	(32.9)	(3.5)	(55.4)	
비수도권 (117개교)		162,659	12,393	12,985	59,303	10,020	159,942	1.7
		(63.2)	(4.8)	(5.0)	(23.0)	(3.9)	(61.5)	
국·공립 (24개교)		309,136	16,082	18,928	99,402	11,482	306,280	1.3
		(67.9)	(3.5)	(4.2)	(21.8)	(2.6)	(66.6)	
국·공립 (24개교)	사립 (93개교)	87,456	2,650	6,221	39,939	4,076	87,714	0.8
		(62.3)	(1.9)	(4.4)	(28.5)	(2.9)	(61.5)	
비수도권 (117개교)		221,680	13,432	12,707	59,464	7,406	218,566	1.6
		(70.4)	(4.3)	(4.0)	(18.9)	(2.4)	(68.8)	

주: 1) 자료 기준일: 2017년 4월

2) ()는 비율을 나타냄.

자료: 교육부(2017), 2017년 4월 대학정보공시 보도자료.

□ 2016년 과목별 B학점 이상을 취득한 재학생 비율은 69.6%로 전년(69.4%)대비 0.2%p 상승

표 3. 학생 성적평가 결과

(단위: 명, %)

구분	A학점		B학점		C학점		D학점		F학점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전체(187개교)	5,159,122	5,295,533	6,066,153	6,260,641	3,875,082	4,011,451	533,882	566,667	499,004	517,869
	(32.0)	(31.8)	(37.6)	(37.6)	(24.0)	(24.1)	(3.3)	(3.4)	(3.1)	(3.1)
국·공립 (30개교)	1,207,593	1,274,029	1,293,372	1,365,182	732,068	758,132	101,392	111,903	94,843	104,190
	(35.2)	(35.3)	(37.7)	(37.8)	(21.3)	(21.0)	(3.0)	(3.1)	(2.8)	
사립 (157개교)	3,951,529	4,021,504	4,772,781	4,895,459	3,143,014	3,253,319	432,490		454,764	404,161
	(31.1)	(30.8)	(37.6)	(37.5)	(24.7)	(25.0)	(3.4)		(3.5)	(3.2)
수도권 (70개교)	2,135,353	2,153,345	2,376,974	2,433,675	1,412,174	1,453,482	189,696		199,161	188,004
	(33.9)	(33.5)	(37.7)	(37.9)	(22.4)	(22.6)	(3.0)		(3.1)	(3.0)
비수도권 (117개교)	3,023,769	3,142,188	3,689,179	3,826,966	2,462,908	2,557,969	344,186		367,506	311,000
	(30.8)	(30.7)	(37.5)	(37.4)	(25.1)	(25.0)	(3.5)		(3.6)	(3.2)

주: 1) 자료기준일: 2016년 최종성적 산출시점

2) ()는 비율을 나타냄.

자료: 교육부(2017), 2017년 4월 대학정보공시 보도자료.

□ 2017학년도 명목등록금은 분석대상 187개교 중 184개교(98.4%)가 동결(160개교) 또는 인하(24개교)하여,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7학년도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등록금은 6,688천 원임.

* $\Sigma(\text{각 대학 학과별} \cdot \text{학년별 입학정원} \times \text{해당 등록금}) / \text{전체 입학정원}$

○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계열별 평균등록금은 의학 9,535.5천 원, 예체능 7,790.8천 원, 공학 7,114.6천 원, 자연과학 6,788.1천 원, 인문사회 5,959.0천 원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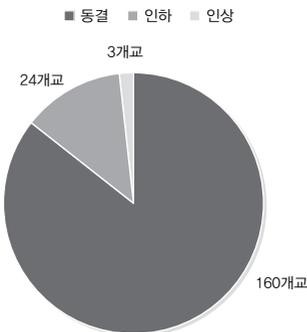
표 4. 연간 등록금 현황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7년			2016년		
	학생정원	전체 등록금	평균 등록금	학생정원	전체 등록금	평균 등록금
전체(187개교)	1,309,677	8,759,078,145	6,688.0	1,333,925	8,887,999,322	6,663.0
국공립(30개교)	288,403	1,204,670,826	4,177.0	293,636	1,222,539,946	4,163.5
사립(157개교)	1,021,274	7,554,407,319	7,397.0	1,040,289	7,665,459,376	7,368.6

자료: 교육부(2017). 2017년 4월 대학정보공시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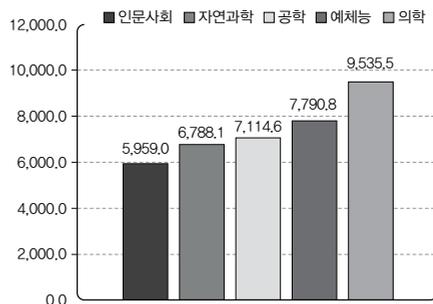
그림 1. 2017년 명목등록금 변화 여부



자료: 교육부(2017). 2017년 4월 대학정보공시 보도자료.

그림 2. 2017년 계열별 평균 등록금 현황

(단위: 천 원)



자료: 교육부(2017). 2017년 4월 대학정보공시 보도자료. KRIIVET

(작성: 손민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사람이 희망입니다.